



미국, 경비와 에너지 절약 그리고 환경 보호 위해 전구 교환

미국 뉴 잉글랜드(New England) 지역은 미국 어느 다른 지역보다 에너지 효율적 조명을 위해 전구를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은 돈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

거의 25,000명에 달하는 뉴잉글랜드 주민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전구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에너지 스타 전구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뉴잉글랜드의 높은 전기세를 고려하면 이를 통해 전구 하나의 수명이 다 할 동안 거의 130만 달러가 절약되고 온실가스는 1,300만 파운드를 저감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미국 시민들이 서약한 바에 의하면 125,000개의 전구가 교체됐으며, 이 중 20%는 뉴 잉글랜드 주민에 의한 것이었다.

뉴잉글랜드에서 주민들은 두 개 정도 전구를 교체할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이 전국적으로 에너지 스타 라벨을 받은 전구를 가장 많이 채택하는 선도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정에서 전구 두 개를 에너지 스타 전구로 바꾸면 전구 수명이 다 할 동안 한전기세 8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900파운드로 환산된다. 조명이 일반적인 가정의 전기세 1/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상당한 것이다.

만약 모든 미국 가정이 전구 한 개만 에너지 스타 전구로 바꾸다면,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800,000대의 차량이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 만큼 저감된다.

CITES, 상아 매매 규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이 보스와나(Botswana, 20톤), 나미비아(Namibia, 10톤), 남아프리카(South Africa, 30톤)에서 코끼리 상아 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아 판매에 관한 원칙은 2002년 합의됐다. 그렇지만 이러한 합의는 코끼리 밀렵 및 개체수 수준에 관한 최신의 광범위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 코끼리불법살육모니터링(Monitoring of Illegal Killing of Elephants : MIKE) 시스템 능력에 따른 조건부 합의였다.

지난 CITES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는 주요 컨퍼런스에서 CITES의 실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회의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이에 판매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했다.

2004년 몇몇 남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출한 연간 상아 쿼터 요청은 CITES 회원국 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에서 허가되지 않았다. 상아에 관련된 합법적인 판매는 코끼리 개체수에 따르게 되며 이는 자연적으로 죽거나 혹은 살육에 의한 것을 감안하게 된다. 남아프리카의 현재 코끼리 개체수는 조약 부록 II(Appendix II)에 포함돼 있다. 부록은 코끼리 쿼터가 0일지라도 허가시스템을 통한 무역을 관리하게 된다. 나머지 다른 나라의 코끼리 개체수는 부록 I(Appendix I)에 포함돼 있다. 부록 I에 있는 경우, 모든 상업적인 거래가 금지된다.

세계적으로 코끼리에 관한 장기적인 논의는

상아 판매수입에서 나오는 수익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수익은 지역사회 생활과 코끼리 보존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판매는 코끼리 생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했다. 이에 기초 데이터는 객관적으로 상아 판매가 코끼리 개체수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CITE 상임위원회는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하는 15개국 대표로 구성된다. 169개 회원국으로 이뤄지는 CITE 다음 14차 회원국회의(14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 14)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007년 6월 3~15일 열린다.

일본, 기업과 환경보전 자율협정 체결

환경성은 (주)로손 및 (주)모스푸드 서비스와 순환형 사회 구축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일본 최초로 '국가-사업자 간 환경보전 자율협정'을 체결했다. 자율협정의 체결로 두 사업자는 일회용봉투 사용 삭감 대책이나 비석유제품 사용으로의 전환 등 선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환경성은 협력과 더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용기포장 폐기물의 3R(재사용, 재활용, 재이용)을 향한 '자율협정'은 일본의 중앙환경심의회 폐기물 리사이클 부문의 권고사항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전국적, 지역적 수준에서 사업자와 국가 지방공공단체 간 자율협정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자율협정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자발적 활동의 유효성 및 실효성을 확보' 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자발적 활동은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자가 직접 효과적, 효율적으로 행정목적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활동의 내용 및 목표가 행정목적에 비취 불충분하거나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사업자가 자발적 활동에 대한 선진적인 목표와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협정에 명기, 행정주체가 해당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 활동의 타당성 확보, 목표달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가능케 된다.

둘째는 '사업자의 활동을 촉진' 하는 것이다. 용기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됐지만, 사업자는 이를 '보탬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자발적 협정을 통해 이미 활동을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행정부문이 PR이나 각종 지원을 통해 그 활동을 보다 진작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산성비오염 심각

중국 기상국(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CMA)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8월 가장 심각한 산성비오염에 시달렸고, 특히 그 중 베이징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국 통계치를 보면 전국 곳곳에 설치된 155개 산성비관측소 중 19곳에서는 지난 8월 비 오는 날마다 산성비가 관측됐으며, 51곳은 비오



는 날 중 절반에서 산성비를 겪었다. 베이징의 경우 비오는 날 중 80%가 산성비가 내렸다.

중국 전역에서 산성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북동부에서 남서부에 걸친 지역이었다. 여기에 속하는 성 및 지방정부는 장시(Jiangxi), 후베이(Hubei), 후난(Hunan), 광둥(Guangdong), 저장(Zhejiang), 귀주(Guizhou), 시촨(Sichuan), 헤베이(Hebei), 산시(Shanxi), 탄진(Tianjin), 베이징(Beijing)이었다.

기상학자들은 9월부터 강우가 줄어들면서 베이징에서 가을과 겨울에 산성비가 오는 일수는 점점 희박해 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렇지만 겨울에 석탄난방을 비롯한 기타 오염발생난방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산성안개를 만드는 이산화황 배출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산성비는 금속, 돌, 시멘트, 나무를 부식시켜 전선, 철도, 가옥, 다리에 피해를 입히고 역사적인 빌딩도 주요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산성비를 흡수하는 토양과 수체가 오염물질을 곡물에 옮겨 결국 사람들의 각막과 호흡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이산화황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서 2005년에만도 2,549톤을 배출했다. 이는 2000년 수치에서 27%나 상승한 것이었다.

정부가 매년 9%를 줄이겠다고 공표한 연기와 산업먼지배출도 2005년 상승했다.

영국, 환경인센티브 체계로 재활용을 증가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가 350만 파운드를 제공하는 일련의 인센티브 체계에 기인, 수 백만의 영국인들이 재활용을 늘리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전역 지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50여 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쓰레기를 저감, 재사용, 재활용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방법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는 환경식품농촌부 웹사이트에 게시돼 있다(www.defra.gov.uk/environment/waste/localauth/encouragement.htm).

현금, 자동차, 휴일과 같은 개인적인 보상이 몇몇 체제를 통해 주어지고 있으며, 또 다른 체계에서는 지역적 인센티브를 위해 지역사회에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재활용가능물질을 수거된 수거할 수 있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오염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한편,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쓰레기 저감을 노리는 프로그램도 있다. 어떤 경우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돼, 지역사회가 매우 열성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다양한 자발적 지역그룹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환경식품농촌부의 벤 브래드쇼(Ben Bradshaw) 지역환경, 해양 및 동물복지(Local Environment, Marine and Animal Welfare) 장관은 “우리는 1997년부터 재활용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후변화를 줄이고 유럽매립한계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우리 행동을 많이 바꿔야 하

는데,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호주, 지속가능교육 강조

호주 환경유적부 장관 이안 캠벨(Ian Campbell) 상원의원이 모든 호주인이 보다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기후변화 및 물관리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어린이뿐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지속가능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속가능성 문화는 호주 지속가능 스쿨 이니셔티브(the Australian Sustainable Schools Initiative : AuSSI) 등을 통해 교육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 호주에는 2,015개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몇몇은 쓰레기 저감을 40%까지 달성, 전기세를 8,900불 줄였다.

장관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 사회 내에서도 달성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NAB, 토요타, 웨스트팩, 웨슬리 미션 등 10개 주요 기관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테크닉을 이용하고 있다.

장관은 “UN 10년(UN Decade)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시키게 됩니다”고 말했다.

10년을 위한 전략(Strategy for the Decade)

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호주 지역사회에서 모든 부문에 걸친 가정 및 직장에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 포트폴리오를 검토함으로써 본 전략은 어떻게 정부가 이 복잡한 이슈에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핀란드, 자동차 재활용 캠페인 실시

핀란드에서 자동차 재활용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이 실시됐다. 법에 규정된 대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중지된 차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핀란드에서는 매년 100,000대에서 140,000대의 차량이 운영을 그만두는데, 이중 1/5만이 현재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핀란드 교통통신부(Minister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수잔나 후오비넨(Susanna Huovinen) 장관은 운전자들에게 낡은 차를 처분할 때 공식적 재활용 시스템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관은 또 자동차세에 있어 그 초점이 차량취득세에서 차량이용세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캠페인기간 동안 차량소유주가 자신의 차를 핀란드 자동차 재활용회사(Finnish Car Recycling Ltd.)에 가지고 가는 경우 차량등록금을 내지 않고 차를 폐기할 수 있다. 인센티브로서 자동차소유주는 500유로(미화 625달러)와 200유로(미화 250달러)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받게 된다. 이 500유로짜리 상품교환권으로는 새 차를 사는 데, 200유로짜리로는 중고차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